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개최기간 2030. 5월~10월	개최장소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
---------	----------------------	----------------	-------------------------	-------------------	---------------



부산체육 2023. 01 Vol. 51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Vol. **51**
2023. 01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신년사

부산체육 이야기
2023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BSC 뉴스
2022 부산 체육인의 밤



CONTENTS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1**
2023. 01

발행일 2023년 1월 16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51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성기환
편집·취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김민기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

건강한 육체

04
신년사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운수 교육감

08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펜싱협회
김용완 회장

12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보남 부회장

16
부산스포츠 히어로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04

강

강인한 정신

20
부산체육 이야기
2023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26
달려라 부산체육
테니스 동호회 '금화클럽'

30
구·군체육회 신년사



08

한

한마음 광장

38
부산스포츠 기자단 에세이
대한카바디협회 '찾아가는
카바디교실 및 강습회' 개최

40
스포츠 PLUS
동계 스포츠

42
오늘의 10분 운동
새해 첫 다짐,
작심일년 운동하기

44
슬기로운 건강생활
치주 질환의 치료와 예방법

46
이달의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26

생

생생한 소식

48
BSC 뉴스
2022 부산 체육인의 밤

50
구·군체육회 소식

55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58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59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48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체육인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체육회 역할과 확장에 최선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체육인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부산체육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체육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 4년간 더욱 매진하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비로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국내 스포츠 대회와 국제 빅 스포츠 이벤트가 지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던 것처럼, 2023년 한 해도 체육인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호인에서부터 전문선수까지 스포츠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더 확장된 체육회를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스포츠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로 재정을 안정화시키며, 스포츠 인권과 가치 확산을 강화하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발전으로의 선순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여 동호인에서부터 전문선수까지 모두가 스포츠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 체육인들 모두 소원했던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옥토끼의 해 ...

20
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부산체육 진흥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2023년!

존경하는 부산체육가족 및 시민 여러분 희망 가득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고 계신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를 비롯한 부산체육인 여러분 『부산체육』 소식지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민선 2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으로 연임되신 장인화 회장님과 새롭게 선출되거나 연임되신 구군체육회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체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추진력과 화합을 통해 내·외부적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은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으로 부산체육 진흥을 위해 나아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 결집으로 전문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일상 속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동 지원과 시민참여 체육행사를 통한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체육인재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과 시민맞춤형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개최하여 국제적 스포츠 도시로 향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유치하여 추진하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선수 육성과 체육시설 개보수 등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체육의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체육은 일상회복 시점의 중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부산체육을 향한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함께 힘 모아, 부산 대도약의 역사를 개막합시다!

존경하는 부산 체육가족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각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활짝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게 되지만 특히 올해 2023년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으로써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가 곧 개막하고 민선 1기 3년 동안 닦아온 토대 위에 체육계 현안이 도약의 미래를 향해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 2025년 부산전국체육대회를 앞둔 체육시설 리모델링, 여기에 모든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확충 방안 마련 등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두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도전에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스포츠만큼 우리를 뜨겁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이벤트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대회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몸소 보여준 대표팀의 선전으로 자신감과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카타르 월드컵뿐 아닙니다. 일찍이 우리 부산의 역할이 그러했습니다. 부산은 2002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대회를 연중 개최하며 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역사에 길이 남을 첫승을 이뤄내며 부산은 '승리의 도시'로 각인됐습니다.

바로 그 부산이 세계인의 경제올림픽이며, 문화올림픽인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기구 17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종 개최도시 선정 투표가 올해 11월로 임박했습니다. 2030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부산'으로 우뚝 서는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2023년, 가슴 뛰는 부산 대도약의 역사를 개막하기 위해 존경하는 부산 체육가족 여러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인 여러분의 열정과 부산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부산시민에게 희망의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스포츠문화도시 부산의 이름이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부산체육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길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 해의 지혜로운 기운을 받아, 부산 체육인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산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 체육회 회장님과 체육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선 2기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으로 연임되신 장인화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산 체육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처럼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생활체육 저변을 다시 확대하였으며, 회원종목단체와 구·군 체육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부산의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건전한 체육 활동을 통해 부산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부산광역시체육회 관계자분들과 부산 체육인 여러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부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상 속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 지역 체육 문화의 선진화와 함께,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 넘치는 부산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학교체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아침 체육 활동을 비롯한 학교 간 활발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계묘년(癸卯年) 새해는,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산 체육계가 다시 한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체육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싱을 향한 진심을 담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 제9대 회장,
천우제이와이 대표 김용완



펜싱이 귀족 스포츠라는 선입견이 있어 몰랐는데,
그 매력이 어마하더라고요.
상대가 초등학생이어도 전략이 읽히면
지는 게 펜싱의 묘미죠.

최근 부산 출신 펜싱인들의 활약이 거세다.
국제대회에서 승승장구 활약하며 펜싱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펜싱을 향한 진심을 쏟아내고 있는
부산광역시펜싱협회 김용완 회장을 만나보았다.

Fencing

무한한 펜싱의 매력

김용완 회장은 20대 중반 무렵부터 일찍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왔다. 2006년부터 15년간 운영한 피트니스클럽은 누적 회원만 8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로 성장하기도 했다.

“조부께서 부산광역시골프협회 1기 회장님이셨는데, 개인 싱글로 골프 챔피언을 9회나 하셨죠. 평소 운동을 좋아하시던 조부께서 피트니스업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저 또한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연계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형 피트니스클럽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던 터라, 시기에 맞춰 IT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 라운지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즈음 김용완 회장은 펜싱과 인연이 닿았다.

“스포츠업과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이전까지 펜싱과 일절 관계가 없었기에 망설여졌지만, 부산 펜싱에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제9대 부산광역시펜싱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용완 회장은 펜싱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펜싱이 귀족 스포츠라는 선입견이 있어 몰랐는데, 그 매력이 어마하더라고요. 상대가 초등학생이어도 전략이 읽히면 지는 게 펜싱의 묘미죠. 두뇌 싸움은 물론 체력 증진까지 할 수 있어 협회장이기 이전에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부산거점스포츠클럽, 센텀펜싱클럽, 부산다대펜싱클럽 등에서 펜싱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라고.

“부산광역시펜싱협회에서는 찾아가는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펜싱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펜싱을 배웠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펜싱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이나 진학하는 등 희망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펜싱 환경 조성을 위하여

펜싱을 전문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김용완 회장은 이제껏 쌓아온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경영을 해오면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甲)이 되지 않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죠.”

김 회장은 피트니스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신경 써온 만큼 협회원들에게 펜싱을 즐길 환경이 쾌적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펜싱은 운동할 때 갖춰야 할 복장이 많다 보니 내부에 땀도 많이 납니다. 요즘 펜싱복 렌탈이 잘 갖춰져 있지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위생에 민감하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때 비로소 펜싱을 더욱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티셔츠나 운동복 지급 및 세탁기 건조기를 구비하는 등 쾌적한 펜싱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로지 펜싱에 필요한 복리적인 비용을 쓰자는 것이 김용완 회장과 협회 임원진들의 방향이다.

“회장직을 맡는 동안 펜싱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마음껏 누렸

으면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형 스마트 트레이닝 라운지는 부산광역시청 펜싱 실업팀이 언제든지 와서 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죠. 물론 체험 비용도 일제히 받지 않습니다.(웃음)

부산광역시펜싱협회는 2021년 10월 펜싱화를 개발한 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선수들에게 용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사기 증진과 독려를 위해 포상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펜싱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펜싱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김용완 회장은 임기 4년 중 절반을 보내는 동안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부산 출신 선수들은 도쿄올림픽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뜨거운 활약을 펼쳤다. 또한 협회에서는 2022년 진행된 청소년 월드컵을 위해 해외 4개국에 부산 펜싱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한우리 총무이사(동의대학교 펜싱부 감독)가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사업을 확보한 덕분이기도 하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의 성과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협회 임직원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부산 펜싱에 진심을 쏟은 펜싱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한데 모아 펜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펜싱 강국인 만큼 전문 펜싱 선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부산에도 갖춰져야 하는데, 그 시작이 ‘대회’이다. 대회를 유치하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호인이 활성화되며, 펜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선수층이 확보되고, 선수들이 자라 실업팀이나 펜싱 관련 진로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오는 3월 중순 2023 국제 남녀 플뢰레 그랑프리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세계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권위 있는 대회인데요. 부산 최초로 진행되는 펜싱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협회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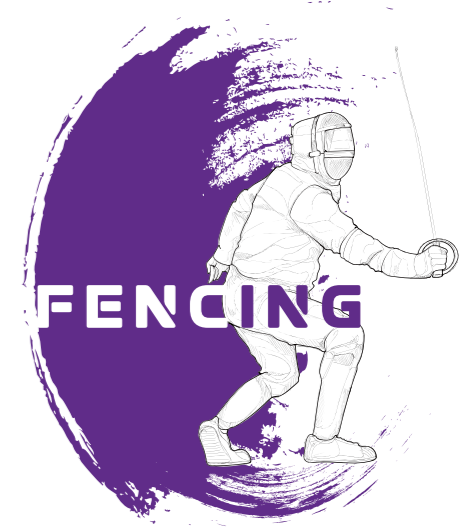
대회가 잘 마무리되면 부산에서 국제대회 개최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성과들은 부산 내의 실업팀이 존재해야 할 당위성의 뒷받침이 된다.

“현재 부산 내에는 실업팀이 한 곳밖에 없고, 사브르 종목 실업팀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업팀 창단을 위해 부산시와도 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했고, 체육회 측에서도 관심을 주고 계시는 만큼 앞으로 부산 펜싱인들이 활약할 장이 많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김용완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부산광역시펜싱협회의 사무실 확보, 지도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 등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 중이다.

“펜싱이 순간적인 인기 때문에 관심받는 종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젊은 회장인 만큼 여러 방면으로 뛰어나며 부산 펜싱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중순 2023 국제 남녀 플뢰레 그랑프리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부산 최초로 진행되는 펜싱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협회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키 불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보남 부회장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해도 부산에는 비가 오거나, 잠깐 내리다 그칠 정도이기에 부산에서 눈을 보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 눈이 필수인 스키장도 없다. 그런데 부산에서 스키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되고, 대회에서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눈 덮인 대관령에서 기른 체력

부산과 달리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강원도. 그중 대관령은 눈이 많이 올 때면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쌓여 삼으로 눈을 파서 터널을 만들어 나와야 할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대관령이라는 조금 특수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김보남 원로는 폐활량과 체력이 남달랐다고 한다.

“제가 폐활량이 좋은지 몰랐다가 태릉선수촌에 들어가서야 알았어요. 폐활량과 심박수 수치가 마라톤 선수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김보남 원로는 육상에서 먼저 재능을 펼쳤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군 체육대회와 도민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이어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키를 시작한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이다. 그의 체력을 알아본 체육 선생님께서 스키를 권했고 육상과 스키를 병행해 오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스키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육상을 한 게 스키를 타는 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에너지 소비라든가 여러 면에서 극한의 운동이라 육상 선수 이상의 근지구력이 필요해요.”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스키와 폴을 이용해 눈이 덮인 산이나 들과 같은 지형의 정해진 코스를 빠르게 완주하는 종목이다. 10km, 15km, 30km, 50km 등의 코스가 있어, ‘스키계의 마라톤’이라 불린다.

화려한 성과, 아쉬운 끝맺음

김보남 원로는 스키로 유명한 진부중학교와 진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출전한 선수권 대회에서 1등부터 6등까지 모두 진부고등학교 선수가 차지하였고 제주에서는 대학팀을 상대로 승리하기도 했다.

“훈련이 끝나면 무조건 대관령 정상까지 갔다 와야 했어요. 정상까지 거리가 6km 정도 되는데,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는데도 뛰어야 했죠.”

대관령 아래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아흔아홉 개의 고개를 스키를 타고 한 번 내려가면 너무 지쳐서 3일씩 올라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김보남 원로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쉬운 점이 많다. 그중 하나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했을 시절에 역량을 기를 방법이 혹독한 훈련뿐이었다는 점이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지금은 혈액 검사로 피로도를 측정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등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 선수 생활을 20년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한 그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선수 생활을 이어갈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당시에는 실업팀이 없었을뿐더러 국군체육부대에도 스키팀이 없었다. 그러다 동계 스포츠의 근대 2종이라 불리는,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만들어졌다. 김보남 원로는 이 종목으로 국군체육부대에서 선수 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고,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이 구성되었을 때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출발

선수 은퇴를 앞두고 강원도에 위치한 스키장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던 김보남 원로. 그런데 그는 스키장이 아닌 부산을 선택했다. 합숙 등의 이유로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너무 힘들었는데, 가족 모두가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부산행은 스키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스키를 떠난 그의 삶이란 상상하기 어려웠다.

“몇 개월 동안 형님의 사업을 도왔는데 체력도 남아 있고 배운 게 스키이다 보니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협회를 찾아봤어요.”

김보남 원로가 부산에 왔을 때는 부산광역시스키협회가 창단되기 전이었기에 그는 먼저 산악회를 찾아갔다.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부산을 대표해 전국동계체육대회까지 출전하게 되었다. 그때 그가 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가 부산 스키 최초의 메달이었다. 이어서 해화여자중학교와 해화여자고등학교 스키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김보남 원로는 지도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체육교육학과를 전공한 그는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광역시스키협회 전무이사를 역임하며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협회에서 경기인 출신은 저 혼자이다 보니 선수 육성과 관련 된 일에는 목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과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기적

김보남 원로는 선수와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선수와 지도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들이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 중이다. 선수들의 훈련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리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그렇게 한 곳, 두 곳에서 지원을 받아냈다. 덕분에 계속 훈련을 할 수 있었던 스키팀은 부산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6년 연속 종합 5위라는 성적을 거두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22년에는 스키 종목 종합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스키팀이 종합 3위를 한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강원도, 경기도 그다음이 부산인 거예요. 부산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얻은 점수의 3분의 2는 스키 종목에서 얻은 점수입니다.”

2022년에는 좋은 성적과 더불어 초등학교에 스키부가 창

단되는 경사도 있었다. 부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스키부가 존재했었는데 초등학교 스키부는 처음 생긴 것이다. 이로써 꿈나무 선수 육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김보남 원로는 부산에서 훌륭한 선수가 더욱 많이 배출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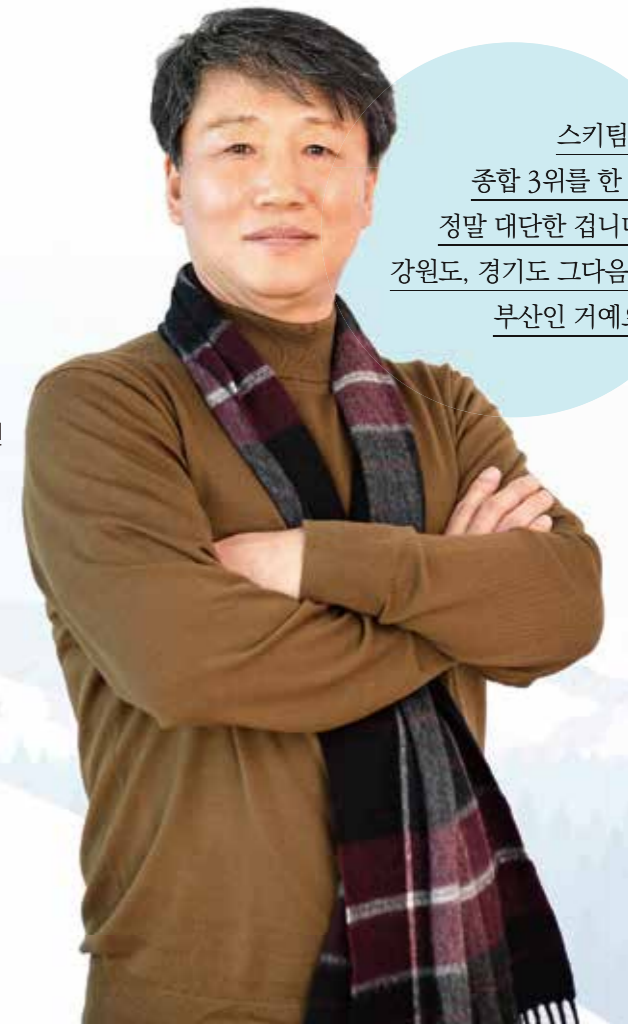
스키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맞서는 스포츠인 만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김보남 원로는 스키로 단련된 강한 정신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그의 행보를 보면 스키와 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PROFILE

주요 이력

- 1981년 강원도 평창 진부고등학교 졸업
- 1981~1987년 크로스컨트리 스키 및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 1984년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대회 스키 출전
- 1985년 국민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
- 2001~2016년 부산광역시스키협회 전무이사 역임
- 2010년 신도중학교 스키부 창단
- 2012년 신도고등학교 스키부 창단
- 2016~2021년 대한스키협회 이사 역임

스키팀이
종합 3위를 한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강원도, 경기도 그다음
부산인 거예요.



코트를 지배하는 부산 라켓소년단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안남초등학교 강당에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코트 위에 던져진 셔틀콕을 쫓아 라켓으로 정확하게 받아내는 선수들의 스텝도 덩달아 경쾌하다. 배드민턴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코트를 중흥무진하는 8인의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선수들을 만나보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2010년도에 창단된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부산의 여자 배드민턴 선수 육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작년 출전한 대회에서는 개인전·단체전·복식전 등 모든 종목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그 중심에는 국가대표 출신인 전월식 코치의 역할이 한몫하였다. 국가대표 은퇴 후 은사님들의 요청으로 부산 내 배드민턴부를 지도하며 전문선수 육성에 힘을 보태오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를 맡게 된 전월식 코치. 그는 선수들에게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어린 초등학생 선수이다 보니, 기교를 부리는 등 화려한 기술보다는 기본기를 닦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어린 선수들의 민첩성과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정해진 규격보다 면적을 크게 사용하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셔틀콕을 손으로 잡는 훈련도 진행하는데, 이는 선수들이 라켓을 잡았을 때 코트 깊숙한 곳까지 컨트롤 할 수 있어 경기에서도 좋은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전지훈련은 타지역 배드민턴부와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선수들에게 여러 자극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선수들은 대회를 위해 여러 훈련을 진행하지만, 전월식 코치가 선수들에게 대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기죽지 마라’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가령 10대 0으로 지고 있으면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포기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지는 건 괜찮아도, 포기하는 건 용납 못 하거든요.(웃음)”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 점수가 크게 벌어져도 뒤집는 경우가 많다고. 그 덕분에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선수들은 ‘깡’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배드민턴으로 하나 되는 안남초

어린 학생인 선수들이 성장통을 이겨내며 경기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박상열 부감교사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크다.

“간혹 선수들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연습을 하는데요. 저도 웬만큼 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다 보니, 이제는 고학년 선수들과 대결을 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웃음)”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선수를 포함해 모든 구성원이 배드민턴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예로 선수들의 학부모들을 꼽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선수들의 대회 출전에 동행해 참관하며 응원을 보내주는 것은 물론 배드민턴부를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가령 배드민턴 동호회에 직접 허락을 구해서 선수 모집 전단을 붙이기도 하고요. 동호회 대회가 진행되는 곳에 ‘안남초 배드민턴부원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는 등 열렬히 홍보해주고 계십니다.”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으로 보편화된 스포츠이지만, 전문체육으로 육성되는 선수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안남초 전 구성원이 선수 수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부모님들의 배드민턴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안남초등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어린 선수를 육성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선수 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대표 등 선수 개개인이 목표한 바를 배드민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배드민턴을 이끌 꿈나무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에서 오랜 시간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온 서준영, 소유정, 정휘린(6학년) 선수. 중학교 진학을 앞둔 세 선수의 배드민턴을 향한 열정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휘린 선수는 안남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해왔다. 어릴 적 우연히 배드민턴을 접하면서 재미를 느낀 정 선수는 시합에서 점수 차이가 조금 나면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면 ‘더 노력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다고.

안남초등학교 주요 수상내역

- 2010 배드민턴부 창단
- 2020 밀양 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인전 1위(박민지)
- 2021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개인전 3위(정아영)
- 2021 제58회 부산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인전 1위(박민지), 단체전 1위
- 2022 제59회 부산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인전 1위(서준영), 단체전 1위
- 2022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2위
- 2022 밀양 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인전 3위(소유정), 복식전 3위(소유정·정휘린)



“작년 8월에 출전했던 대회에서 단체전 2위를 차지했는데요. 다 함께 노력해서 거둔 성과라 기억에 남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다른 선수의 영상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꿈을 그리며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개인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준영 선수는 초등학교 때 재밌게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권유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자 3학년 말부터 안남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서 선수는 작년 4월 출전한 대회에서 개인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경기에서 상대보다 뒤쳐질 때마다 조금 더 침착하게 하자 마음먹고, 또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자고 생각하며 플레이에 임합니다.(미소) 중학교에 가서도 선수 생활을 할 텐데,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꿈나무 선수가 되어 멋지게 활약하고 싶습니다!”

배드민턴부 주장을 맡으며 선수들의 맘언니 노릇을 했던 소유정 선수는 어머니와 함께한 동호인 클럽에서 배드민턴의 매력에 푹 빠지며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소 선수는 스트로크할 때가 가장 재밌다고.

“최근 출전한 대회에서 세트를 지고 있었는데, 코치님 말씀대로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항상 미래 국가대표가 될 모습을 그리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꿈나무 선수를 시작으로 나중에 실업팀에 들어가서 국제대회에도 출전하고 싶습니다.”

세 선수는 지도자 선생님들께 어릴 때부터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후배들에게 배드민턴의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힘내라는 응원의 말도 전했다. 배드민턴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코트를 누비는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선수들. 차세대 배드민턴을 이끌어갈 선수들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박상열 부감교사



전월식 코치



서준영 선수



소유정 선수



정휘린 선수





2023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소개

2022년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체육계의 활기를 되찾은 한 해였다. 체육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전국체육대회·소년체육대회 등이 정상 개최되었으며, 실내 생활체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활체육인들이 활력을 되찾기도 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2023년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자.

희망을 향한 힘찬 날개짓
2023년에도
체육인을 응원합니다!

정책목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

추진전략

- 체육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가치확산
- 엘리트체육 강화 생태계 조성
- 일상에서 평생동안 맞춤형 스포츠 권리 향유
- 글로벌 스포츠도시 브랜드 확립

I 체육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가치확산

- 스포츠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스포츠 인권 강화 및 가치 확산
- 회원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스포츠거버넌스 구축

II 엘리트체육 강화 생태계 조성

-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
- 건실한 실업팀 운영 시스템 조성 및 지원
-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대회 참가

III 일상에서 평생동안 맞춤형 스포츠 권리 향유

- 일상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행복지수 향상
- 활기찬 운동문화 조성을 위한 체육서비스 강화
- 지역체육단체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

중점 추진과제

IV 글로벌 스포츠도시 브랜드 확립

-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 스포츠 붐업, 생활-전문 스포츠 균형 발전을 위한 홍보 추진



01

체육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가치확산



① 스포츠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체육회 유·무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부산지역 내 후원기업(향토기업, 은행, 병원 등)을 유치하여 체육 발전 후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체육 진흥사업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정기적인 후원금 마련으로 재정 자립 증대의 효과 및 체육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스포츠 인권 강화 및 가치 확산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권피해 실태조사 활성화 및 각종 체육 대회와 훈련장 등 현장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침해(폭력·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가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③ 회원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스포츠거버넌스 구축

회원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총 59개 정회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집행 내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회원단체 간 정보교류 및 실무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회원단체 직무연수를 개최코자 한다.



02

엘리트체육 강화 생태계 조성



①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도자를 배치하여 학교 교기육성 및 운동부를 활성화하고, 꿈나무 발굴·육성으로 인적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고등부·대학부 성적향상을 위해 성적 우수팀 및 고사위기팀을 정책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학교운동부 해체 방지, 고등·대학·일반 연계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② 건실한 실업팀 운영 시스템 조성 및 지원

부산관내 우수선수 연계육성을 통한 모범적인 실업팀 운영 롤모델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하여 클린 스포츠를 구축하고 선수단의 재능 나눔 실시를 통한 올바른 스포츠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③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대회 참가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로 전문체육 저변 확대 및 상위 입상을 통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의 체육활동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여 생활체육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03

일상에서 일생동안
맞춤형 스포츠
관리 향유



① 일생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행복지수 향상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일생형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평생 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 향상과 평생스포츠 참여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② 활기찬 운동문화 조성을 위한 체육서비스 강화

공공체육시설 수탁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문성·공익성·신뢰성을 통한 다양한 대시민 프로그램과 양질의 공익적 체육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산스포츠과학센터와 스포츠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해 부산 대표선수들에게 맞춤형 과학적 훈련 방법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력 향상 도모와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선수 Pool을 증대할 것이다.

③ 지역체육단체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

구·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증대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보급,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조사·지도·관리 등 생활체육 관련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04

글로벌 스포츠도시
브랜드 확립

①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국제화 시대 흐름에 맞춰 회원종목단체 국제친선 교류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선진형 체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체육단체 및 동호인의 수준 향상 및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부산을 알리는 민간 외교 역할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스포츠 붐업, 생활-전문 스포츠 균형 발전을 위한 홍보 추진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소셜네트워크(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활성화로 다양한 체육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부산체육 인지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더불어 부산시민과 체육인들의 참여를 통한 콘텐츠 제작으로 부산체육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

테니스 동호회 '금화클럽'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클럽

등산, 웨이트트레이닝, 수영 등과 달리 구기종목이 좋은 점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테니스는 코트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뜨거운 랠리를 펼치면서 깊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이 같은 테니스의 매력에 흠뻑 빠진 회원들이 모인 금화클럽은 2001년 결성된 순수 아마추어 테니스 동호회이다. 2003년 금화클럽에 가입한 이래 20년 동안 이곳에 몸담고 있는 양석현 회장은 클럽 이름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제구에 사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동래중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야간에 모여 테니스를 한 것이 클럽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문에 ‘동래 夜’라는 이름이었다가 나중에는 금요일과 화요일에 모임을 갖게 되어 ‘금화클럽’으로 개명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사직실내테니스장에서 오후 7~10시에 운동하고 있다. 또 실외 경기에 적응하기 위해 월레대회는 스포원코트, 사회체육센터코트, 월드컵빌리지코트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금화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들의 연령대가 부산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다. 회원 평균 연령이 30~40대 초반이며 실력도 순수 아마추어로서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젊다는 것은 앞으로 더 커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몇 년 뒤에는 부산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명문 클럽으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테니스 부흥기가 도래하다

금화클럽은 신규회원 유치에 위해 별도의 SNS 활동을 하진 않는다. 많은 회원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인성이 좋고 실력이 있는 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추천받은 회원은 한두 달가량 같이 운동한 후 다른 회원들의 평판에 따라 입회 여부가 결정된다.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테니스는 기량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많은 마니아들을 거느리고 있다. 부산에서 테니스를 사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들이 모인 금화클럽 회원을 찾아가 보았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양석현 회장은 테니스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스포츠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1~2년 정도 테니스 레슨을 받아야 클럽에 들어와 기존 회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 금화클럽이 신규회원 유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초보자가 테니스 클럽 활동을 못하란 법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테니스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각 테니스코트마다 이른바 ‘테린이(테니스 초보자)’들을 위한 클럽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테니스 부흥기가 도래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이전 초보자들도 쉽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테린이 클럽에서 테니스 실력을 갈고 닦은 후 금화클럽 같은 상위 클럽으로 옮겨 가도 좋을 것이다.



세계적인 선수 탄생에도 한몫해

양석현 회장은 클럽 활동을 하면서 현재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지성 선수와의 인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동래고등학교 출신인 남지성 선수의 아버지 남재욱 씨가 저희 클럽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남지성 선수도 아버지와 함께 여기 와서 몇 번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선수가 실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저희 클럽에서 후원회를 결성했고 전 부산 지역 테니스 클럽의 협조를 받은 덕분에 부산오픈에 와일드카드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의 탄생에 금화클럽이 한몫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한편, 남지성 선수는 지난해 한국 남자테니스 복식 사상 최초로 데이비스컵 파이널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양석현 회장은 금화클럽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가는 데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동배조에 머물렀던 금화클럽이 은배조를 거쳐 지난해에는 처음 정상급 실력을 갖춘 클럽끼리 겨루는 금배조에 들어가 시합하게 된 것을 보면 감개무량하다고.*

*클럽 대회의 리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테니스협회에서 주최하는 클럽대회는 5복식 3선승제로 치러지며, 클럽 실력에 따라 금배조, 은배조, 동배조의 리그에 각각 소속되어 시합을 겨루게 된다.

더욱 단합된 힘으로 두각 드러낼 것

금화클럽은 회원들 사이의 정을 돈독히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도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하계 동계 MT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2회 정기모임 후에는 치맥 타임을 가져 회원 간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한 번 시작하면 오래도록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오랫동안 운동을 해온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막역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테니스와 함께 건강과 우정도 챙기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도 만끽하고 있는 금화클럽. 그들은 올해도 활기찬 함성과 함께 중형무진 코트 위를 누빌 것이다.

연혁 및 주요 수상내역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대회

- 2019년 동배 우승 1회, 준우승 1회, 3등 1회, 은배 준우승
- 2018년 은배 우승
- 2016년 은배 준우승 1회, 3등 1회
- 2015년 은배 우승
- 2012년 은배 준우승 1회, 3등 1회
- 2005년 동배 우승



Mini Interview

평생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테니스



테니스 동호회 금화클럽 양석현 회장

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동호회 ‘금화클럽’의 회장 양석현입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의 임차 코트였던 상록테니스코트에서 처음 레슨을 받으면서 테니스에 입문했습니다. 이전에도 수영, 탁구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테니스만큼 재미있는 운동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테니스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어 2003년 금화클럽에 가입한 후 지금까지 20년간 즐겁게 테니스를 치고 있으나, 코트 임차료가 비싸다보니 운영 부분에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테니스는 한 번 배우면 80세까지도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포츠입니다. 테니스를 하다 보면 건강 관리, 몸매 관리도 저절로 되고 평생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친구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테니스를 시작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3 구·군체육회 신년사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 회장 직무대행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장 직무대행 박성도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체육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현장이 제법 긴 시간을 주춤했었지만, 위드
 코로나 선포로 인해 팬데믹이 끝이 나고 각종 사업 및 행사가 정상화되면서 체육현장
 에 활기를 되찾고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구체육회에서도 중구체육회장배체육대회, 중구청장배체육대회, 부산시민체육대
 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다양한 대회 및 행사, 체육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삶의 활
 려와 건강증진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현장은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근력강화운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다양한 계층
 이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체육발전 및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와 인프
 라 구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에도 체육인들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 나은 체육현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체육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여 보다 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
 려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체육인 여
 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한 해,
 힘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회장
김용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계묘년 토끼처럼 경총! 뛰어오르는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장 김용구입니다.
 자랑스런 서구민을 비롯한 모든 체육인 여러분! 지난 2022년 팬데믹과 불확실성의
 긴 터널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현장의 굵은 땀방울은 방역 상황의
 어려움을 딛고, 서구체육회도 올 한 해 많은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서구에서는 서구청장배 구민체육대회, 부산씨름왕선발대회, 종목별협회장배대회 등
 부산체육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철저한 방역과 안전 속에서 차질없는 행사를 진행하
 였습니다. 부민동노인복지관 협약을 통해 더 긴밀한 체육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또 한 번 도전하는 발자취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체육인과 임직원 여러분! 각자의 새해 다짐이 있겠지만, 저는 건강과 행복
 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체육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 힘차게 시작하는 새해! 체육인과 임직원 모두의 앞길에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
 길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회장
황현선

존경하는 동구체육가족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를 거뜬하게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시작하였습니다. 야외 행사도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건강을 지키며 내실을 기해오신 동호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행복한 체육 구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힘껏 매진하겠습니다.

민선 2기 체육회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1기 시절에 계획했던 행사 및 사업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계획함으로써 내실있는 체육행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정회원 단체 및 준회원, 인정단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야구와 배구로 대별되는 우리 구의 학교체육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농구, 체조 등 각종 대회에서 선전하는 종목과 학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동호인대회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북항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라는 목표로 달려가는 민선 8기 구정을 잘 뒷받침하며, 체육회 위상을 더 높이는 일 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와 나 구별 없이 하나되어 멋진 체육회로 함께 달려갑시다.

종목단체 및 동호인 모두에게 큰 행운이 함께 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회장
이강

사랑하는 영도구 체육인 여러분!

시련과 격동의 묵은해를 딛고,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개최되지 못하였던 대회 및 행사를 치르며 몇 년간 갈고 닦은 체육인의 기량을 마음껏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는 밝은 한 해였지만, 여전히 실내체육관 개방 등 완전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더욱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영도구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 영도구 전체가 들쭉날쭉할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묘년에는 검은 토끼의 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건강과 즐거움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회장
김호상

존경하는 체육인 가족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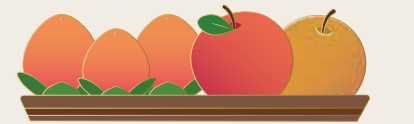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2년은 이전과는 달리 체육동호인들의 스포츠활동이 생기를 되찾고 각종 체육행사가 활성화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도 부산시민체육대회 종합준우승, 여성체육대회 종합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둔 내실 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가 이렇게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체육인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해입니다. 검은 토끼는 예로부터 영리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토끼의 영리함과 지혜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고, 혹여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염원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회장
정춘식

사랑하는 체육인 및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진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아낌없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밝고 건강한 세상입니다.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하면 앞날에 분명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희망찬 계묘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길운이 넘치고 더 빠르고 힘차게 전진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 직무대행
박경빈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 직무대행 박경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방역기준 완화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많은 대회들이 개최되어 동호인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회나 행사들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새해 붉은 태양처럼 열정 가득하고 토끼의 지혜로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회장
장성수

지난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예전과 같이 땀 흘리며 노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스포츠 일상 회복을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체육의 힘찬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십시오.
 저희 금정구체육회에서도 부산 체육인 여러분의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높은 곳을 빠르게 도약하는 토끼처럼 힘차게 한 단계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체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힘들었던 모든 일들은 멀리하고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회장
김상철

존경하는 부산시체육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장 김상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체육회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2년은 꺾일 듯 꺾이지 않는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참사 등 대내외 악재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나날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癸卯年)은 검은 토끼의 해로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더불어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만나는 해라고 합니다.
 길한 운세를 맞이하는 한 해를 맞아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회장
김재업

존경하는 강서구 체육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장 김재업입니다.
 희망찬 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2022년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체육행사들이 하나 둘씩 개최되면서 체육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3대 민선 2기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재임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2023년에도 힘차게 출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강서구체육회의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회장
김진근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체육회장 김진근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통해 연제구 체육발전에 밑거름이 돼 주신 구민과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연제구체육회는 체육인이 주체가 되는 체육회로 지역체육 발전과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시키는 등 체육인 여러분과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21만 구민의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체육인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부지런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회장
강진태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희망하고 꿈꾸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민선 1기 3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시국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구 체육회에서는 시민체육대회 우승과 비대면 걷기, 생활체조교실 운영, 학교운동부 지원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2기를 시작하는 올해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에 새로운 체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상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방법의 변화, 생활체조교실,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종목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각종 체육행사에도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2년째 지원하고있는 학교운동부와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육성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어린 체육선수들이 불편 없이 운동에 집중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올해는 민선 2기 사상구체육회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새해에도 사상구체육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회장
황대성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가족 여러분!

희망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하시는 일 더욱더 번창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민선 1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부족한 저에게 체육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2기 수영구 체육회는 「우리 모두 함께, 스포츠로 더 행복한 도시 수영」을 슬로건으로 하여 기초가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참여 자체가 즐거운 생활형 스포츠를 지향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화합과 소통으로 더욱더 구민 속으로 다가가고 신뢰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수영구민과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시가지체육회 회장
김동철

체육가족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직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대부분의 예측은 낙관보다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더 크게 얘기하곤 했으며, 어김없이 올해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원칙과 비전'을 갖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원칙과 비전'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선장이 방향키를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 희망 새길을 여는 길에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길 바라며, 계묘년 한 해, 여러분 머무시는 삶의 풍경마다 건강과 안녕도 함께 머물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교에서 즐기는 카바디! 대한카바디협회 찾아가는 카바디교실 및 강습회 개최

글 _ 제2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반종완



카바디를 통한 자기개발

대한카바디협회는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시기를 활용 해 찾아가는 카바디교실 및 강습회를 실시하였다. 카바디는 건 강체력 향상 및 순발력, 민첩성, 협응성 등 다양한 체력 요소를 키울 수 있고, 주도성, 협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를 이끌어낼 수 있어 자기개발시기(전환기)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이다.

엄태덕 카바디 국가대표 코치가 전문 강사로 나서 하루 2~4시 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바디 소개 및 공격과 수비 전략, 4인제 카바디 체험 등 간단한 팀 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카 바디 기본기를 다지며 학년말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기개발시기 카바디 강습을 받은 학생들은 작년 12월에 열린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주최 학교스포츠클 럽 카바디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마련된 카바디 강습 회에는 엄태덕 국가대표 코치와 이장군, 조현아 등 카바디 국 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학교별로 카바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카바디교실은 남천초, 송정초, 괴정초, 청동초, 동삼 초, 연제초 등 관내 초등학교 11개 학생 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2월까지 운영한다.



부산스포츠 기자단 (가나다순)

1기 김소연, 김수현, 송민수

2기 남윤주, 박은경, 반종완, 오수민, 이정민

자기개발시기(전환기)는 학년말부터 다음 학년으로 진학 하는 시기인 전환기이다. 이 시기는 학년을 끝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대한카바디협회는 찾아가는 카바디교실 및 강습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활력 을 불어넣고 있다.



카바디 강습회를 열게 된 계기와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꾸준히 카바디 강습회를 열다 보니 학교에 카바디 스포츠클럽이 생겨나고 카바디를 체험 해보고자 많은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 강습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11개 학교 학생 600여 명 을 대상으로 카바디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카바디를 배우며 재미있어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바디 강습회를 통해 카바디가 널리 알려지고 체육 꿈나무 들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을 개발하여 진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nterview

황준 회장
대한카바디협회

2022년에는 협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2월에 제12회 한국카바디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 개최, 10월에 제7회 협회장배 전국종별비치선수권 겸 제7회 전국중·고교선수권 겸 제9회 전국초등학교대회, 제10회 라쉬반배 한국스포츠클럽대전 및 제11회 전국대학생카바디선수권대회, 12월에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 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카바디대회, 찾아가는 카바디교실 및 강습회, 카바디인의 밤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신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 러 병원과도 협약을 맺어 선수들의 안전 및 의료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부산카바디협회장을 7년간 맡아오다 대한카바디협회장으로 선출되어 카바디협회를 재정비하 며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중국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가 2023년도에 열릴 예정이라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고 있습니 다. 아시아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카바디가 국민스포 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뜨겁게 불태우다! 동계 스포츠

W I N T E R S P O R T S

겨울이면 더 핫하게 즐길 수 있는 동계 스포츠!
전국 동계체육대회 정식 종목이기도 한 쇼트트랙, 스피드케이팅,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을 중심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자.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빙상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포함한 종목을 일컫는다. 1967년 국제빙상 경기연맹(ISU) 공인,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대회 시범종목 선정 1992년 알베르 빌 동계올림픽대회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스피드스케이팅이 '기록 경기'인 데 반해, 쇼트트랙은 '경쟁 경기'이다.

알파인스키



유럽의 알프스 산악지방에서 발전한 스키의 한 종류로 가파른 경사면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활강 경기와 회전 경기 등이 있다. 1936년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세부 종목으로는 활강,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이 있다. 스키 장비 중 활강·대회전·슈퍼대회전용으로 사용되는 폴·스키는 웅크린 자세로 활강 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휘어진 폴과 회전용 스키보다 긴 스키를 사용한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으로, 북유럽에서 18세기 후반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에서 양국의 수비대가 스키와 사격을 겨룬 것이 시작되어, 1960년 미국 스퀴벨리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세부 종목은 총 11개로 남·녀 개인, 스프린트, 매스스타트, 추적, 계주, 혼성 계주가 있다.

아이스하키



1920년 앤트워프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데뷔, 1924년에 동계올림픽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으로 빙판 경기장에서 양 팀 각 6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기시간 내 골대에 퍽을 넣어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승리한다. 세부 종목으로는 남자 토너먼트, 여자 토너먼트가 있다.

컬링



중세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놀이가 17~18세기를 지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겨울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1965년 국제컬링연맹이 창설된 뒤 1991년 세계컬링연맹으로 개편되어 각종 국제 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동계올림픽대회에서는 1924년 제1회 대회에 이어 1932년·1988년·1992년에 시범 종목으로 선보인 뒤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제18회 동계올림픽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세부 종목으로는 남자·여자·믹스더블 종목이 있으며 각각 4명(믹스더블 2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컬링시트(Curling sheet)'인 직사각형의 얼음 링크 안에서 컬링스톤이라 부르는 둥글고 납작한 돌을 미끄러뜨려 '하우스(house)'라는 표적 안에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늘의 **10분** 운동

새해 첫 다짐, 작심일년 운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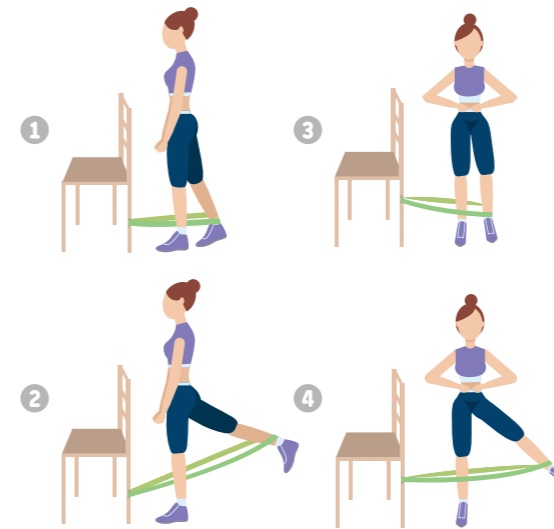
새해 다짐 계획에 '운동하기'를 적고 있다면 주목하자!

운알못(운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여기저기 좋다는 운동을 따라 하다 금방 지쳐 포기하지 말고 '작심삼일'을 '작심일년'으로 만들어줄 간편한 세라밴드로 새해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시작해보자.



새해 첫걸음을 가볍게

고관절 옆에 위치한 중둔근을 자극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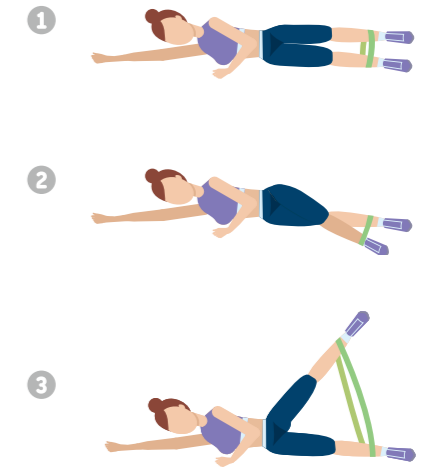


- 01 밴드 한쪽 끝은 발목에 걸치고, 다른 쪽 끝은 고정된 소파나 의자 다리에 고정한다.
- 02 정면을 바라보면서 밴드를 걸친 다리를 최대한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천천히 45도 정도 젖힌 후,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 후 반대쪽도 따라 해준다.
- 03 측면을 바라본 상태로 편안하게 자세를 잡는다. 이때 상체가 앞으로 숙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 04 밴드가 묶인 쪽 다리를 옆으로 뺀어 약 5초간 유지 후,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 후 반대쪽도 따라 해준다.

든든한 버팀목 허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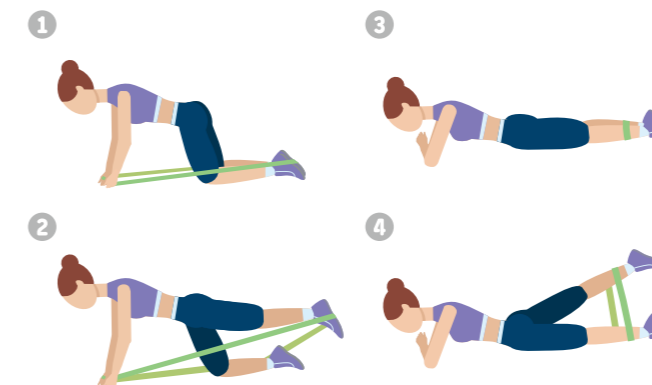
중둔근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함께 단련되는 운동법으로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 01 밴드를 양쪽 발목에 걸고 옆으로 누운 뒤 한쪽 팔을 뺀어 몸을 지지한다.
- 02 한쪽 다리를 앞으로 뺀어 5초간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양다리가 완전히 붙지 않도록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을 두어 다리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한다.
- 03 이후 한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 04 02-03 동작을 연결해 10회 실시한다. 동작이 끝나면 지지한 팔을 바꾸어 반대쪽 다리도 따라 해준다.



건강한 무릎을 위하여

허벅지 앞, 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으로,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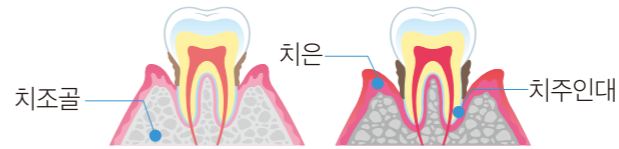
- 01 밴드를 양쪽 발바닥에 고정된 후 손으로 잡아당긴 뒤, 무릎을 바닥에 댄다.
- 02 양팔과 한쪽 무릎으로 중심을 잡은 뒤, 다른 한 발을 천천히 뺀어 5초간 유지한 후 원위치로 돌아온다. 반대편 다리도 실시한다.
- 03 밴드를 양쪽 발목에 걸고, 편안하게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다. 이때 허리는 꺾이지 않도록 하며, 무릎은 올곧게 펴준다.
- 04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후 반대편 다리도 실시한다.

잇몸 건강을 지키자 치주 질환의 치료와 예방법

periodontal disease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면 일시적 증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치주 질환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잇몸이 크게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다고 방치하면 치아가 빠질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기에, 치주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

치주 질환이란?



흔히 풍치라고도 하는 치주 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인 치은, 치주인대,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으로 치아에 생기는 플라크라는 세균막이 주원인이다. 이 플라크가 누적되면 석회화된 치석이 쌓이게 되면서 치주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치주 질환은 유아나 청소년보다는 성인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성인이 되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게 되면 치주 질환 발병 확률도 높아지는데 20세 이상의 경우 절반 가량, 40세 이상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열 명 중 여덟 명에게서 발생한다. 특히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잇몸이 약해지며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는 경우 치주 질환 위험이 더 커진다.

치은염과 치주염



치주 질환은 잇몸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데,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뉜다. 치은염은 살에 해당하는 치은에만 생긴 염증을 말하고, 치주염은 치은을 넘어서서 치주인대와 치조골 뼈까지 염증이 확장된 상태를 말한다.

치은염은 잘 치료한다면 건강한 잇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초기 염증 상태이며, 치주염은 이미 뼈가 상해 있기 때문에 치료해도 원래의 모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치주 질환의 치료법

가벼운 치은염은 대부분 스케일링 등의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잇몸에 염증이 심하거나 치주염으로 진행된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스케일링으로 해결되지 않는 치주 질환은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되어 염증의 원인이 잇몸 깊숙한 곳에 자리하는 경우이다. 이때 비외과적 방법과 외과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비외과적 방법은 수술하지 않고 기구만으로 해결하는 치료법이다. 잇몸 마취를 하고 잇몸 사이로 기구를 비집어 넣어 염증의 원인을 제거한다. 외과적 방법은 염증의 원인을 수술로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기구로만은 해결할 수 없어 잇몸을 절개하고 들춰내어 깊은 곳에 있는 원인을 제거한다. 염증 상태에 따라 치과의사의 판단 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치료 이후 치주 질환을 관리하지 않으면 치주염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야 한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려면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아 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과 스케일링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혹 잇몸 관련 약이나 영양제를 임의로 챙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치과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치주 질환 치료 후에도 주기적인 치과 검진과 함께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칫솔, 치실 사용으로 치아와 잇몸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자 김혜남 / 출판사 메이븐

정신분석 전문의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 온 김혜남이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을 담은 책이다. 그녀는 지금껏 살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뒤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산 것이라고 말한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해 내려 애썼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다 22년 전 마흔세 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이 없으면 집안도 병원도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았는데 세상은 너무나 멀쩡히 잘 굴러갔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켜 주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벌써 마흔이 되어 버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도 딱 한가지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이 책은 2015년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출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1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기념해 펴낸 스페셜 에디션으로 저자가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과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전한다. 또한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등 환자들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Composition of Books

프롤로그. 파킨슨병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Chapter 1 :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

Chapter 2 : 환자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

Chapter 3 : 내가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

Chapter 4 : 마흔 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Chapter 5 :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에필로그. 내 인생의 버킷 리스트 10

2022 부산 체육인의 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29일(목) '2022 부산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2022년 한 해를 회고하고 2023년 새 출발을 다짐하며 부산체육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었다.

2022 부산체육인의 밤 행사는 (통합)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이후 처음 개최된 행사로 2022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16개 구·군체육회 임원·직원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부산교육감, 부산시의원, 국회의원 등 20여 명의 내빈도 참석해 체육인의 밤을 축하해주었다.

이날 행사는 개식을 시작으로 참석 내빈소개와 한 해 동안 부산시체육회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물 상영, 부산광역시댄스스포츠연맹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의 축하공연, 체육발전에 기여한 부산체육인들에게 시상하는 유공자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체육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체육회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었고, 한국거래소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는 등 부산체육인을 격려했다.

또한 지난 12월 22일(목)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선 2기 체육회를 이끌어갈 16개 구·군체육회장 당선인도 참석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체육인들의 긍지를 높이

고 안정된 체육계를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산체육을 발전시킨 부산체육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체육인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자

- 고재희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부회장)
- 곽영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운영위원회)
- 곽용섭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이사)
- 김경년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이사)
- 김경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김기도 (부산광역시연제구탁구협회 회장)
- 김동철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회장)
- 김만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 김무진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위원)
- 김영모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이사)
- 김용완 (부산광역시펜싱협회 회장)
- 김종범 (부산광역시동래구축구협회 회장)
- 김종수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지도자)
- 김주혁 (부산광역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부위원장)
- 김태경 (부산광역시탁구협회 부회장)
- 김한희 (부산광역시검도회 이사)
- 김형구 (부산광역시보도빌딩협회 부회장)
- 김호상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회장)
- 남기원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교류위원회 위원)
- 문상훈 (부산광역시영도구배구협회 회장)
- 박창희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 박철심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부위원장)
- 서추덕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 이사)

- 성재운 (부산광역시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
- 손희현 (부산광역시산악연맹 부회장)
- 송순임 (부산광역시체육회 해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 우준기 (부산광역시북구파크골프협회 회장)
- 유재우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수석부회장)
- 이다경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부회장)
- 이석규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부회장)
- 이양재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불링지도자)
- 이영우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위원장)
- 이오선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 이용식 (부산광역시씨름협회 부회장)
- 이재홍 (부산광역시육상연맹 수석부회장)
- 이종선 (부산광역시체육회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 이현창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 정영원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부위원장)
- 정우수 (부산광역시금정구태권도협회 회장)
- 조정현 (부산광역시복합협회 부회장)
- 조치홍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 조홍래 (부산광역시동래구체육회 이사)
- 주호상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이사)

- 단체**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
 -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NEWS

구·군체육회 소식

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회장 선거

지난 12월 22일(목) 민선 2기 제9대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장 선거 결과 김용구 회장이 연임하게 되었다. 당선증 교부식 행사는 서구선거관리위원회 1층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용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김용구 회장은 “서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건 무엇보다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동구체육회

2022 동구체육인의 밤

한 해 동안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동구체육회 임원진, 내빈, 학교 관계자, 선수, 생활체육 동호인이 모인 2022 동구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28일(수)에 진행되었다. 동구체육회 황현선 회장, 동구청장, 동구의회의 격려와 축하 인사 속에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영도구체육회

2022 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8일(수) 2022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영도구 체육 발전 및 동호인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투철한 스포츠 정신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영도구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한 선수 및 동호인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체육인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다.



부산진구체육회

2022년도 마무리하는 부산진구 대회

지난 12월 2022년을 마무리하는 부산진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12월 3일(토)에는 제25회 부산진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가, 4일(일)에는 제41회 부산진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11일(일)에는 제12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배구대회가 각각 열렸다. 2022 마무리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3년간의 대회 공백을 채우는 시간이었으며, 참가자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2022년도 마지막 대회인 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2022년도를 마무리하였다.



대회결과

- 제25회 부산진구청장배 테니스대회 → 청배 우승 : 큰솔클럽 / 홍배 우승 : 국제백양A / 최우수선수 : 태화현대 김상훈 선수
- 제41회 부산진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 우승 : 황령축구회 / 준우승 : 부전마켓타운축구회
- 제12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배구대회 → 남자부 우승 : 굿렌즈 / 여자부 우승 : 동부배사미

동래구체육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및 즐넘기 대회

지난 12월 24일(토) 사직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16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와 제3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즐넘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 화합하며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경기력과 결속력을 강화시킨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동래구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구민들의 신체적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2023년도에는 더욱 많은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남구체육회

제7회 부산광역시남구청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남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8일(일) 백운포 테니스장 외 5개소에서 약 660명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부산광역시남구청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동호인들은 열띤 경기를 펼치며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가 되었다.

대회 결과

신인부 1위 예시원, 박상인(부산나이스) /
개나리부 1위 견신행(부산나인), 김미양(김해목욕)



북구체육회

2022 북구체육인의 밤

지난 12월 27일(화) 덕천동 일대에서 2022 북구체육인의 밤이 개최되었다. 많은 체육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진행된 북구체육인의 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김성호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으며, 북구체육인들의 무궁한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회 해운대구청장배 주짓수 대회

지난 12월 11일(일) 한마음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제1회 해운대구청장배 주짓수대회가 개최되었다. 초·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250여 명의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가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부상자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는 부산 최초 구청장배 주짓수대회로 우수한 인재 발굴과 주짓수 종목의 대중화와 동호인 및 학생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대회가 되었다.



사하구체육회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개장식

지난 12월 16일(금) 사하구청 주관으로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개장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하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파크골프 동호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사하구파크골프협회는 15개 클럽 약 600명의 동호인들이 있지만, 그동안 관내 파크골프장이 없어 사상구, 강서구 등으로 원정 훈련 및 경기를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사업비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작년 5월 파크골프장이 완공되었으며, 보완을 거쳐 개장하게 되었다. 사하구 파크골프장의 개장을 통해 동호인 수 증가는 물론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구체육회

제4대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장 선거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2일(목) 금정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제4대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장 선거를 진행하였다. 투표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를 시작으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2번 최규원 후보가 65표를 획득하며, 1번 조항래 후보(45표)를 제치고 금정구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최규원 회장은 “앞으로 금정구체육회와 소속 종목단체들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강서구체육회

2022 강서구 청소년농구클럽대항 3대3 농구대회

지난 12월 16일(금) 경일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2 강서구 청소년농구클럽대항 3대3 농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강서구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중학교 11개 클럽,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들은 개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냄과 동시에 팀의 화합과 협동심을 보여주는 등 수준 높은 경기의 대회가 치러졌다.

대회결과

우승 : The fishes(명지중학교) / 준우승 : 하티쳐제자들(경일중학교)



연제구체육회

2022 연제구체육회 체육인의 밤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8일(수)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체육회 임원들과 각 종목별 회장, 사무장, 클럽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연제구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2022년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종목별 유공자 22명에게 체육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등 한 해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2022년을 되돌아보며 주요성과 보고, 연제구 체육발전 및 체육인들을 격려하였으며, 2023년에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체육회

2022 수영구 체육가족 송년의 밤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3일(금) 수영구 일대에서 체육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수영구 체육회 회장, 임원, 협회 대의원 및 사무장과 동호인, 구청 관계자, 체육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위한 표창패 수여 및 우수활동어르신, 우수회원종목단체 시상도 함께 진행하였다. 수영구 체육가족 송년의 밤을 통해 체육인들이 2022년 거둔 성과를 점검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함께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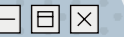
기장군체육회

2022 기장군 겨울 가족스키교실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12월 17일(토)부터 18일(일)까지 전북 무주스키장 일원에서 2022 기장군 겨울 가족스키교실을 진행하였다. 기장군민 18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스키교실은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겨울캠프 진행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은 지난 12월 22일(목) 울산시 일대 눈썰매장에서 겨울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겨울캠프를 통하여 평소 눈을 보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단원들이 눈사람 만들기 등을 체험함으로써 겨울 활동 경험의 기회를 넓히고 질서있게 눈썰매를 타며 공동체 의식과 체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원에서 눈썰매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인솔자의 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눈썰매를 이용하였으며, 동물농장으로 이동해 다양한 동물들을 견학하고 이후 겨울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단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추운 줄 모르고 하얀 눈밭에서 뛰어놀며 신나게 캠프를 즐겼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북구국민체육센터

2023학년도 초등생존 수영교육 위탁운영 예약 접수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로서 전문적인 체육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구 주민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2023학년도 초등 생존수영교육 실시에 따른 질 높은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대상 생존수영교육 위탁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 2023학년도 초등생존수영교육 위탁운영

기관명 : 북구국민체육센터

교육방법 : 수영장 실기교육 및 이론교육 병행 추진
(셔틀버스 운행 지원)

신청(문의) : 051-365-7070

담당 : 김영수 (북구국민체육센터 지도과장)



강서구국민체육센터



2022년 강서구배드민턴협회 여성·청년부 대회 개최

2022년 강서구배드민턴협회 여성·청년부 대회가 지난 12월 11일(일)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만에 진행된 대회를 통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화합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스포츠클럽 회원 방문

부산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지난 12월 21일(수)과 28일(수)에 부산실내빙상장을 방문하였다. 빙상장에 처음 방문한 부산스포츠클럽 회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빙상 체험에 아쉬워하며 재방문을 기약하였다.

한편, 부산스포츠클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소년스포츠클럽이었다. 현재 육상, 수영, 양궁 등의 종목을 운영하며 대표적인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다.



NEWS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2022 부산 장애인체육인의 밤 개최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형준)는 지난 12월 13일(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식 및 2022 장애인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성적 5위를 거머쥔 부산 선수 및 지도자와 종목 가맹단체 임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표창에 부산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구경서 회장을 비롯한 10명에게, 부산광역시교육감 표창으로는 부산해마루학교 교사 전주화 외 2명에게, 부산뇌병변복지관 박홍준 등 19명에게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이 수여 되었다.

2부에는 가맹단체에서 기증한 물품을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에도 부산 장애인체육 가족들이 보다 더 좋은 성적과 행운이 함께하길 소망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NEWS

종목 · 공공스포츠클럽 소식

부산광역시남시협회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

부산광역시남시협회(회장 김선관)는 지난 12월 13일(화) 부산사랑의열매(회장 최금식)에 성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협회 송년회를 겸해 치러진 전달식에는 김선관 회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남시협회 임원들과 부산사랑의열매 박은덕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부산 생활체육 및 관광레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남시협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하고자 성금을 기부했다. 성금은 소외계층의 월동 난방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선관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희망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소외 계층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점스포츠클럽

제23차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21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거점스포츠클럽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7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2023년 사업계획, 2023년 예산을 다뤘으며, 이후 만찬 간담회가 진행되어 2023년 거점스포츠클럽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테니스 전문선수 강화훈련

지난 12월 6일(화)부터 23일(금)까지 사직실내테니스장, 스포원테니스장, 동래고등학교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전문선수 강화훈련을 실시하였다. 타 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과 함께 교류전을 진행하였고 자체 랭킹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2023년 성과를 기대하게 만든 훈련이 되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



당신의 척추·관절 질병과 싸워줄 박원욱병원!

척추·관절·뇌질환·스포츠의학·통증치료



개인별 스포츠의학 재활치료 시스템

박원욱병원

진료 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휴일 09:00 ~ 13:00
휴무기간: 09:00 ~ 17:00
정신시간: 12:30 ~ 13:30

진료 내용
척추·관절·장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아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병원 위치
자하철 2호선 광안역 5번 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안로 4)

문의 전화
1544-7582
www.parkspine.co.kr www.scifocus.co.kr

주거문화 및 레저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

동원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동원이 「DREAM WORK」 브랜드로 공유오피스 사업을 함께합니다.



초고층 부산북항 SKY.V

초고층 부산센텀 SKY.V

초고층 울산우정 SKY.V



물류단지의 새로운 거점 **통영 범송 동원일반산업단지**
(시공중 / 기업유치 중 ■문의전화: 055-345-1040)



바다 위 첨단 인프라 고성 **봉암 동원일반산업단지**
(준공됨 / 기업유치 중 ■문의전화: 055-648-0461)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코스닥 상장 우량기업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시공능력평가
전국 26위 / 부·울·경 1위

주택건설 47년
8만 1천여 세대 공급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공단개발사업 적극 참여기업

DW 동원개발 DW 동원종합건설 SKY.V | 비스타동원 | 동원로얄듀크 | 동원시티비스타

대표이사 회장 장복만 부회장 장호익

동영·기장·양산
DW 동원로얄컨트리클럽

DW 동원제일저축은행

DW 부산해사랑

DW 동원문화장학재단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The new EQE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Mercedes-Benz EQ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스타자동차에서 만나보세요.



MERCEDES-EQ

스타자동차 대표 번호 1688-2369(benz)
홈페이지 www.mbstar.co.kr

<p>전시장</p> <p>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p> <p>금 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p> <p>울 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p> <p>기 장 051-901-2390 부산 가장군 가랑음 가랑해안로 147, B1</p>	<p>인증중고차</p> <p>사 직 051-775-9820 부산 연제구 경기창로 21</p> <p>울 산 052-701-051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p>	<p>서비스센터</p> <p>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p> <p>금 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p> <p>울 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종로 74번길 (위삼산동)</p>
--	---	---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